

# 監理에 대한 小考-감리도 공학이다.

문 대 원

(한국전산원 감리본부장)

감리란 단어의 뜻을 찾기 위하여 국어사전을 펴본다. “감독하고 관리한다” 피감리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괴로운 뜻일 것이다. 감리인(감사인)을 사냥개(Hunting dog)라고 하는 이도 있다. 몇 년 전만해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시스템 통합산업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예술이다. 그러므로 통제지침이나 감리는 이러한 창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실시해서는 안된다.” “비용감리? 피카소 그림의 원가를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 소위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논조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를 찾아 볼 수 없다.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공학 등 신뢰성 있고 무결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학적 바탕위에 창조성을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학적 기반없이 단순히 창작만으로 조직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미술가가 집을 짓겠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감리는 무엇인가? 조감도(鳥瞰圖)인가? 아니면 오감도(鳥瞰圖)인가? 그렇다. 감리는 감리인의 것이다. 까마귀가 보면 오감도고 기러기가 보면 안감도(雁瞰圖)이다. 여기서 이상 선생의 감리에 대한 탁월한 선견지명을 엿볼 수 있다. 감리는 감리인이 수행하는 것이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렇다. 감리도 많은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많은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결론과 처방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안된다. 일정이상 높이로 날 수 있다면 누가 보아도 똑같이 보아야 한다. 감리도 공학이어야 한다.

감리인은 회의론자다. 그렇다. 감리인은 전문적인 회의론(Professional Skepticism)자다. 긍정적인 사람은 감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 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쇼펜하우어도 감리는 잘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시스템을 감리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을 신조처럼 가지고 일해야 한다. 감리인은 인간성이 나빠야 한다? 그렇다. 인정사정 보지말고 남의 약점만 찾는 감리인이 유능하다. 피감리인의 사정이야 어떠하든 자신의 주장에 확신과 논리만 서면 가차없이 밀어 붙여야 한다.

감리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감리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감리도 공학적 접근 방법,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바탕이 없을 때 감리인은 사냥개도 되고 회의론자로도 되며 땅에서 기는 犬瞰圖 밖에는 그리지 못할 것이다. 감리와 관계된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다. 국가 정보화의 중추기관인 한국전산원의 고유업무인 감리본부를 맡게 되면서 감리에 대한 아니 감리인에 대한 생각을 꼼꼼히 해보았다. 오감도가 됐던 안감도가 됐던 조감도는 조감도다. 일정수준 높이가 이상으로 날 수만 있다면 그래 새는 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것은 높이가 날으려는 새인가보다.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리 절차와 기법들은 일정 수준에는 도달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방법, 지금 갖고 있는 안목은 어제의 방법, 내일의 안목이어서는 안된다. 오늘과 내일의 생각이 다르고 내일과 그 내일의 시각이 다를 때 발전이 있는 것이다. 감리는 이치를 보는 것이다. 눈에 끼인 허연 테를 벗고 차츰 맑고 투명하게 사물과 이치를 보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감리기준과 지침을 더욱 정밀히 하고, CMM(Capability

Maturity Model for software process)의 개념을 감리에 적용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 중 중요한 모듈은 Reverse Engineering Tool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각종 소프트웨어 메트릭(Metrics)을 개발/적용하는 등 정량화된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기법을 감리기법화하여 공학적인 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전산감리의 활성화는 여기에 달려있다.